

STRATEGY 21

통권38호 Vol. 18, No. 3, Winter 2015

19-20세기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친(親) 해군 활동과 논문 공모전이 갖는 의미

석영달*

I. 서론

II.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창설과 활동

1.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설립과 성장
2. RUSI의 친(親) 해군 활동과 논문 공모전

III. RUSI의 논문 공모전이 영국 해군에 미친 영향

1. 해군 전략 발전에 기여
2. 시대적 변화에 대한 화두 제시

IV. RUSI의 친(親) 해군 활동과 논문 공모전이 갖는 의미

1. 해군, 해양 관련 공론장의 역할
2. 해군, 해양 분야의 지적 역량 강화

V. 결론

* 해군 대위, 연세대학교 사학과(서양사) 석사, 現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조교수.

I. 서론

1805년 영국 해군이 트라팔가(Trafalgar) 해전에서 거뒀던 승리는 넬슨(Nelson)이라는 훌륭한 지휘관과 예하의 우수한 장교 및 부하들의 단합,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이 양성해 온 해군력이 결합되어 성취한 ‘강한 해군’의 전형적인 승리였다. 그리고 이러한 영국 해군의 위용은 영국 내부와 여러 유럽 열강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면서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이 세계 제일의 해양강국이라는 사실에 그 누구도 의문을 던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런 영국 해군의 절대적인 입지는 19세기 중후반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먼저 19세기 중반 ‘증기군함의 도입’과 같은 유럽의 해군력 변화가 영국의 자랑이었던 범선 함대의 전투력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¹⁾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전쟁 없는 평화 속에서 편안함에만 젖어있던 해군 장교들의 안일함과 무력함 역시 하나의 불안 요소로 작용했다. 빅토리아 시대 후기²⁾에 접어들면 해군 장교를 묘사할 때 흔히 기이한 모양의 장갑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한껏 걸뿔을 부린(Spit and Polish)’ 모습으로, 단지 기술적인 훈련에만 집착하며 지휘하는 모습으로 그려냈다.³⁾ 즉, 오랜 세월 영국 해군을 지탱해왔던 근간인 강력한 해군 함대와 이를 지휘하고 이끌던 인적 인프라가 모두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⁴⁾

한편, 이러한 영국 해군 내부의 문제를 인식하고 영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이를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이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영국 해군의 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역사 교육’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19세기 중후반 영국 해군 내에서 일어났던 역사학 활성화 운동(Historical Revitalization Movement)이었다.⁵⁾ 이 운동의 모토(motto)는 장

1) 증기선의 도입 이후 영국 해군의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석영달, 「19세기 증기선의 도입과 영국 해군의 변화」, 『영국 연구』, 제30호 (2013); 석영달, 「19세기 후반 영국의 해군연감이 가진 입체적 성격과 의미」, 『Strategy21』 제35호(2014년, 겨울호) 등을 참조.

2) 영국의 역사에서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이 통치하던 1837~1901년의 기간을 흔히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빅토리아 시대 후기는 1870년대 이후의 기간을 뜻한다.

3)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1887-1918*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12), p.5.

4) D. M. Schurman, *The Education of the Navy* (London: Cassell, 1965), p.19.

5) 해군 역사학 운동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D. M. Schurman, *The Education of a Navy*:

교들이 전쟁사에 관심을 갖고 과거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현재의 전략 및 전술을 수립하는데 영감을 얻고, 리더십이나 지휘능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역사학 운동은 당시 영국 해군의 교육 시스템에서 부족했던 지적인 역량을 보완해주면서, 19세기 중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해군의 두뇌 역할을 했던 여러 인재들을 길러냈다.

그리고 이 해군 역사학 운동이 제대로 탄력을 받아 전파되는 데에는 3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기관들이 핵심적으로 기능하였다. 그 기관들은 바로 해군 정보부(Naval Intelligence Department), 해군 기록학회(Navy Records Society), 그리고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이하 RUSI)였다. 이 중 특히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해군 정보부와 해군 기록학회 소속의 사람들이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있는 포럼 및 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영국 해군의 공론장(public sphere)⁶⁾ 역할을 했고, 동시에 그들의 다양한 견해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저널을 펴내기도 했다. 그리고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이러한 활동들 가운데 특히 주목받았던 것은 우수한 장교들을 데뷔시키는 등용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논문 공모전(Essay Prize Contest)’이었다. 이 논문 공모전은 여러 장교들이 역사학 운동의 분위기에 편승하여 역사적 사례와 자신의 경험을 접목시켜 시대적 이슈를 반영한 논문을 작성하도록 독려했고, 공모전에서 수상한 유능한 장교들이 군 내외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이처럼 당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과 그 곳에서 운영하던 저널은 영국 내의 군사 분야, 특히 해군 관련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이었고, 그 곳의 논문 공모전에서 수여하는 최우수상인 골드 메달(Gold Medal)은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영국의 수많은 유능한 장교들이 응모한 공모전에서 가장

The Development of British Naval Strategic Thought, 1867-1914 (London: Cassell, 1965); Andrew Lambert, *The Foundations of Naval History: John Know Laughton, the Royal Navy, and the Historical Profession* (London: Chatham, 1998); Geoffrey Till ed., *The Development of British Naval Thinking: Essays in Memory of Bryan McLaren Ranft* (Abingdon: Routledge, 2006);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1887-1918*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12) 등을 참조.

6) 여기서 말하는 ‘공론장’이라는 것은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공론장(public sphere)’ 개념을 의미한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공중이 스스로를 여론의 담지자로 조직해 나가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를 오늘날의 중요한 공론장으로 적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당 시대의 해군 관련 공론장으로 기능했음을 보이고자 할 것이다. 공론장 개념에 대해서는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언론과 사회』 (2012), p.180을 참조.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는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그 장교의 역량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그가 가진 견해를 여러 군 관계자 및 정치인들에게 논리적으로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이런 골드 메달 수상 논문은 어찌 보면 당대 영국 해군의 지적 조류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그 흐름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촉매제이기도 했다.

본 논문은 이런 관점에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널에 실린 논문들 중 특히 논문 공모전에서 해군 분야 골드 메달을 수상한 논문들에 주목하면서 그것이 반영하고 있는 시대상을 보이고, 동시에 그것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분석을 통해 19-20세기 영국 해군의 전략 및 전력 획득과 관련한 지적 조류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또 그 계보가 어떻게 변해갔는지도 함께 검토해볼 것이다. 지금까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와 관련된 연구들에서는 단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기능을 다루거나,⁷⁾ 연구소에서 출간하던 저널의 논문을 개별적으로 인용하면서 특정 인물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⁸⁾ 다만 유일하게 폴 아담스(Paul Adams)의 연구 「제국의 군사적 시각 1870-1899: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을 통해서」가 여러 시기의 논문을 동시에 다루었지만, 이 역시 단지 저널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조망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그것마저도 대부분 육군과 관련된 내용에만 주목하는 한계를 보였다.⁹⁾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진 국내외의 연구들에서는 심지어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소개된 바가 없다.

때문에 필자는 본 논문에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와 그것이 주최했던 논문 공모전에 대해 먼저 소개하고, 이어 해군 분야 골드 메달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당대 영국 해군에서 어떤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었는지 그 시대적 분위기를 보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시대적 변화로 인해 많은 혁신을 해나가야 했던 영국 해군에게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의 활동들이 현재 우리 해군과 관련된 군사

7) Shelford Bidwell, "A History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36(1991); Geoffrey Till ed., *The Development of British Naval Thinking: Essays in Memoiry of Bryan McLaren Ranft* (Abingdon: Routledge, 2006) 등을 참조.

8)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14;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p.17-18, p.32. 등을 참조.

9)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를 참조.

연구소에 전하는 시사점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설립되는 과정과 해군과 관련하여 했던 활동들, 그리고 당시 장교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논문 공모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널에 실렸던 논문 및 해군 분야 골드 메달 수상작들을 분석하면서 그 논문들이 당시 해군의 지적 활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런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과 논문 공모전이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 관련 연구소 및 논문 공모전에 전하는 시사점에 대해 고찰해볼 것이다.

Ⅱ.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창설과 활동

1.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설립과 성장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이하 RUSI)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군(軍)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있던 시점인 1831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이 설립되는 계기는 『콜번 합동군사 저널(Colbourn's United Services Journal)』¹⁰⁾을 구독하던 한 퇴역 군인이 1829년 2월, 그 저널에 한 통의 편지를 보내면서 시작되었다. 그 편지의 요지는 군의 발전을 위해 군사학의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 ‘합동 군사 박물관(United Services Museum)’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에서는 그 박물관이 전적으로 해군과 육군 장교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국왕 조지 4세와 영국군의 총사령관에 의해 후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었다.¹¹⁾

물론 이러한 요구는 한 열정적인 독자의 의견 정도로 치부되어 가볍게 넘어

10) 『콜번 합동군사 저널(Colbourn's United Services Journal)』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의 저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Shelford Bidwell, "A History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36(1991), p.1.

11) Shelford Bidwell, "A History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36(1991), p.1; D. P. O'Connor, "The RUSI, Imperial Defence and the Expansion of Empire 1829-90,"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URL: <https://rusi.org/about-rusi/history>, 접속일: 2015. 9. 15.), p.1.

가버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전쟁에서의 빛나는 승리 이후 군에 대한 자긍심과 국민적 관심이 한창 고양되어 있던 당 시대 영국의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해군 대령 헨리 다운즈(Henry Downes)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 위원회를 조직했고, 조지 4세(George IV, 1762~1830)는 수석부관을 통해 그것에 대한 승인 의사를 전달했다. 그리고 연구소 설립에 관여한 사람들은 모두 이것이 어떤 사교적인 ‘클럽’의 개념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단체’가 되어야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¹²⁾

이런 설립 배경과 함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최초에는 ‘해군 및 육군 도서관 겸 박물관(Naval and Military Library and Museum)’이라는 이름으로 1831년 창설되었다. 그리고 1839년에는 합동군사연구소(United Services Institution)로 이름이 변경되었으며,¹³⁾ 이후 1860년부터는 왕실 칙허장(Royal Charter)을 받으면서 그것의 설립 목적을 ‘해군, 육군의 과학 및 문예의 진보와 촉진’으로 확장시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¹⁴⁾

이 당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포럼 및 강좌에 참여했던 대상은 대부분이 현역, 예비역을 포함한 군 장교들이었으며, 그 외에도 정치인, 공무원 및 다양한 민간인 참가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당대의 가장 권위있는 군사 관련 학술기관으로서 명성을 얻으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곳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는 영국 정계나 군(軍) 내에서 중요한 입지에 있던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 영국군의 총사령관이었던 가넷 울즐리 경(Sir Garnet Wolseley)은 런던에서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연구소 회의의 의장을 맡았다. 그리고 형제가 모두 유명한 전략 이론가였던 콜롬 형제(Admiral Philip Colomb and Captain Sir John Colomb) 또한 포럼 및 강좌에 빈번하게 참석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소장은 빅토리아 여왕의 사촌이자 영국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캠브리지 공작

12) Shelford Bidwell, "A History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36(1991), p.1

13) D. P. O'Connor, "The RUSI, Imperial Defence and the Expansion of Empire 1829-90,"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URL: <https://rusi.org/about-rusi/history>, 접속일: 2015. 9. 15.), p.1.

14) Shelford Bidwell, "A History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36(1991), p.2

(the Duke of Cambridge, Prince George)이 맡았는데 중요한 강의나 회의 시에는 그가 직접 의장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¹⁵⁾

그리고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이란 간행물을 1857년부터 지속적으로 출간했는데,¹⁶⁾ 이 저널은 연구소에서 행해진 강좌들의 강의록과 토론 및 포럼에 대한 기록, 그리고 출판을 위해 기고된 글을 종합하여 출판했다.¹⁷⁾ 이 때 이 저널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만의 특별한 시각을 견지하거나 입맛에 맞춰 글을 선별하여 실기보다는, 오직 저널을 읽는 독자층의 관심에 호응하여 글을 실고자 했다.¹⁸⁾ 때문에 이 저널은 매 기사마다 ‘이 글의 내용의 책임은 오로지 저자 개인에게 있음(Authors alone are responsible for the contents of their respective Papers)’이라는 문구를 지속적으로 삽입하면서 그 의견이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혔던 것이다.¹⁹⁾

물론 이러한 기고 범위에 대한 자유로움은 어찌 보면 저널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식될 수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영국의 군사(軍事)와 관련되어 의미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룰 수 있다는 포용력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는 곧 저널 내용의 풍부함으로 연결되면서 독자들의 관심에 적절히 부합하였다. 결과적으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은 독자들의 관심에 충실함으로써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군사 간행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²⁰⁾

또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널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파견되어 있

15)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p.58.

16) 이 간행지는 1857년부터 출간되어 현재까지도 지속 출판되고 있다.

17)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p.58.

18) 후대의 한 편집자는 이 저널의 출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독창적인 글이든, 편집하거나 번역한 글이든 간에 그것이 군에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리고 그것이 제한된 페이지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중요한 것이고 한다면 [우리는] 출판한다.’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p.58.

19)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p.58.

20) H. Bailes, "Patterns of Thought in the Late Victorian Arm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 No. 1(1982), p.34.

는 군대 에도 다양한 군사 정보와 의견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해군 기지에 파견되어 있던 해군 장교들이 당시 급속도로 변하는 해군의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따라가는데 있어 저널의 정보는 매우 유용했다. 그리고 영 제국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육군 장교들에게는 육군 조직이나 전술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면서 그것의 변화에 대한 인식과 의견 공유에 기여했다. 게다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은 다른 유럽 국가들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다루고 있었기에 독자들의 해외 군사력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도 했다.²¹⁾

이처럼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설립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꾸준히 영국 내의 가장 공신력 있고 인기 있는 군사학 기관으로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인지도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군을 위해 더 폭넓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동시에, 그 활동들에 있어 좀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 활동은 해군과 육군 양 군을 모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긴 했지만,²²⁾ 19-20세기의 영국 국가 전력에서 주된 관심사가 해군이었던 만큼 그 활동 역시 해군에 좀 더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2. RUSI의 친(親) 해군 활동과 논문 공모전

19세기 후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대부분의 활동은 해군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고, 해군과 관련된 강좌를 열거나 포럼을 개최해 여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Public sphere)을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은 19세기 중후반 영국 해군 내에 일어났던 ‘역사학 활성화 운동(Historical Revitalization Movement)’의 전개와 발맞추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9세기 후반 영국 해군의 역사학 운동은 증기 군함의 도입 이후 장교 교육에

21)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pp.58-59.

22)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기본적으로 해군과 육군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에서 설립되었기에 기본 모토(motto)는 해군과 육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있어 지나치게 과학 및 기술 교육만 강조되는 풍조를 우려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²³⁾ 이 운동의 선도자 역할을 했던 존 녹스 로튼(John Knox Laughton), 필립 콜롬(Philip Colomb), 시프리언 브리지(Cyprian Bridge)와 같은 인물들은 장교들에게 체계적인 해군사 교육이 이뤄져야만 그 속에서 교훈과 영감을 얻어 현재의 전략, 전술도 수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인식은 당대의 해군 장교들에게 점차 퍼져나갔고, 곧 그것을 실천할 주도적인 기관과 공간이 요구되었는데 그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것이 바로 영국의 해군 정보부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였다.

이 당시 해군 정보부²⁴⁾는 단지 정보의 수집 및 분석만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영국 해군의 실질적인 전쟁 계획 및 전략 수립 부서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 때 해군 정보부 국장 및 예하 장교들은 대부분 역사학 운동과 관련된 인물들이었으며, 해군사 및 해전사 연구를 통해 과거의 교훈들을 끌어와 현재의 기술, 전술과 접목시켜 체계적인 전략, 전술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었다.²⁵⁾ 이런 해군 정보부의 활동 중에는 전략, 전술, 전력 획득과 관련하여 장교들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있었는데, 이 때 그 포럼을 주관했던 곳이 바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였다. 이 당시 해군 장교들이 공식적으로 당대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논쟁할 수 있었던 장소는 오직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밖에 없었고,²⁶⁾ 그 포럼의 결과는 즉각 해군성으로 다시 전해져 해군의 발전을 위해 활용되었다.

그리고 해군 역사학 운동의 토대가 되어 장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줬던 해군 기록 학회의 협의회 역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에서 주관했다.²⁷⁾ 해

23) 19세기 후반 장교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해군 대학의 대부분의 과목은 대수학, 기하학, 탄도학 등의 기술 및 과학과 관련된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당대의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필요하긴 했지만, 실제로 장교들이 리더로서 함대와 부하들을 지휘할 때 요구되는 리더십이나 전략적인 통찰력, 냉철한 판단력을 갖추게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의 '훈련'만을 위한 교육이었고, 리더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초점을 둔 진정한 '교육'이 되지는 못했던 것이다. Andrew Lamber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the Royal Navy: 1854-1914," Geoffrey Till ed., *The Development of British Naval Thinking: Essays in Memoiry of Bryan McLaren Ranft* (Abingdon: Routledge, 2006), p.44.

24) 영국 해군 정보부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Matthew Allen, "The Foreign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Origins of the Nav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the Admiralty," *The Mariner's Mirror*(1995)을 참고.

25) 석영달, 「1920년대 영국 해군 중장 조지 벨러드의 일본사 서술이 갖는 의미」, 제192회 영국사학회 정례발표회 발표 논문(2015. 8. 29.), p.8.

26) Andrew Lamber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the Royal Navy: 1854-1914," p.49.

27) 로튼과 브리지는 그들의 동료들과 현역에 복무하는 해군 장교, 동료 학자, 출판인, 정치인들과 함

군 내에서 전략, 전쟁 계획, 지휘 등과 관련하여 토의할 내용의 역사적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군 기록 학회가 수행했다면, 그것을 주관하고 포럼뿐만 아니라 강좌 형태로 장교들에게 정보를 전달했던 곳은 바로 왕립 합동 군사연구소였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19세기 후반 영국 해군의 싱크 탱크(Think tank) 역할을 했던 서로 다른 성격의 3개의 기관²⁸⁾ 중 모두에게 관여하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기관은 바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였던 것이다.

그리고 19세기 후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것은 1874년부터 매년 실시되었던²⁹⁾ 논문 공모전이였다. 그리고 이 논문 공모전에서 가장 우수한 논문으로 평가받은 참가자에게는 골드 메달이 수여되었고, 그 골드 메달 수상 논문(Gold Medal Prize Essay)의 내용은 그 해의 가장 주목받는 군사 분야 의견이 되었다.³⁰⁾ 때문에 이 논문 공모전은 당시의 젊은 장교들이 전략, 전술, 군사 기술 등에 대해 사고하고, 연구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³¹⁾ 뿐만 아니라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국방과 안보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와 토론의 장을 부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을 널리 알리면서 그 지위를 강화시키는 역할 또한 함께 수행했다.³²⁾

계 1893년 해군 기록 학회(Navy Records Society)를 창립하기도 했다. 이 학회는 해군 역사학 운동을 위한 밑바탕이 될 만한 역사적 증거들을 발견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교육과 교리 발전을 위해 출판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 학회는 해군 정보부를 위한 비공식적 ‘역사 담당 부서’로서 기능하면서 해군 수뇌부의 지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을 줬다. 해군 기록 학회는 진지한 해군사 연구를 장려하면서,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의 해군사 연구를 한층 더 강화하여 그것을 역사학의 전문적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15.

- 28) Andrew Lambert,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the Royal Navy: 1854–1914,” p.49.
 29) 이 논문 공모전은 1874년부터 지금까지 전쟁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계속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1000파운드라는 상금과 ‘골드 메달 에세이(Gold Medal Prize Essay)’라는 영예가 걸린 논문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다.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홈페이지」 (URL: <https://www.rusi.org/trenchgascoigne/history/>, 접속일 : 2015. 9.25.) 참고.
 30) 이 논문 공모전은 1895년부터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골드 메달 및 트렌치 개스코인 상 공모전(RUSI Gold Medal and Trench Gascoigne Prize Essay)’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논문 공모전의 후원자인 대령 출신의 트렌치 개스코인(Trench Gascoigne)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그의 재정 후원으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좀 더 많은 장교들이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에 글을 실을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었다.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홈페이지」 (URL: <https://www.rusi.org/trenchgascoigne/history/>, 접속일 : 2015. 9.25.) 참고.
 31) Paul Adams,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p.59.
 32)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홈페이지」 (URL: <https://www.rusi.org/trenchgascoigne/>, 접속일 : 2015. 9.25.) 참고.

그리고 골드 메달 수상 논문이 실린 저널의 다음 호에서는 ‘수상 논문과 그 밖의 논문에 대한 토의(Discussion on the prize and other essays)’라는 별도의 기획란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³³⁾ 즉, 논문 공모전에서 상을 수상했던 논문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략, 전술 및 전투방식의 변화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내는 단초가 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수상 논문들은 단지 개인의 영예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해군 장교들 및 해군에 관심 있는 여러 인물들에게 의견을 전달하면서 영국 해군의 발전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Ⅲ. RUSI의 논문 공모전이 영국 해군에 미친 영향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널은 초기에는 군사 분야에 흥미가 있는 독자들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었지만, 그것이 점차 성장해나가면서 그 내용의 깊이는 더욱 깊어져갔다. 특히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에서 주최하는 논문 공모전의 골드 메달 수상작들은 당대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언급하면서, 영국 해군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토론의 장을 열어나갔다. 이 장에서는 그러한 논문들 중 특히 해군 역사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19세기 후반의 논문부터 1차 세계대전 전후까지의 논문에 주목하여 그 논문들의 내용과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논문들을 통해 당시 영국 해군의 지적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1. 해군 전략 발전에 기여

필립 콜롬(Philip Colomb)은 훗날 중장(中將)계급까지 진급했던 유능한 해

33) 예를 들어 1878년의 수상 논문이었던 콜롬 대령(Captain Philip Colomb, 훗날 중장)의 논문은 이듬해 1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에서 바로 ‘수상 논문과 그 밖의 논문에 대한 토의(Discussion on the prize and other essays)’ 섹션에서 토론이 이뤄졌다. 세부 토론의 내용에 대해서는 “Discussion on the Prize and other Naval Essays of 1878,”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22(1879) 참조.

군 장교로서 존 녹스 로튼(John Knox Laughton)³⁴⁾와 함께 초창기 해군 역사학 운동을 선도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로튼이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에 기고했던 논문인 「해군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The Scientific Study of Naval History)」를 읽고 감명을 받아, 자신의 연구에 로튼의 아이디어를 적용시키고자 했다. 이렇게 이뤄진 콜롬의 연구 「영국의 해양력(Great Britain's Maritime Power)」은 1878년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논문 공모전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하게 된다.³⁵⁾ 이후에도 콜롬은 1887년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에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역사 연구를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도출하고 그것을 해군의 현실에 적용하고자 했다. 그 두 논문 중 하나는 해군을 이용한 봉쇄 전략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통상 보호를 위한 호송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 두 논문의 목적은 모두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의 해군 전략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³⁶⁾

한편, 콜롬은 이러한 역사적 사례 연구를 해군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한 차원 더 나아가 국가 전반을 운영하는 전략에도 적용시키고자 했다. 콜롬은 1891년에 출판된 그의 논문집 『해전(Naval Warfare)』에서 오직 해양력만이 국가를 부유하게 만들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해양통제권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루었다. 그는 이 책에서 해양력과 해양력의 특성을 둘러싼 원리들을 언급하면서 역사적 사례를 적절히 활용하여³⁷⁾ 독자들이 강력한 해군력 건설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노력은 19세기 말 해양력과 관련하여 베스트 셀러로 칭송받던 앨프리드 세이어 머헨(Alfred Thayer Mahan)³⁸⁾의 『해양

34) 빅토리아 시대 영국 해군의 지적 조류에 대한 여러 선행 연구에서 해군 역사학 운동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인물은 존 녹스 로튼(John Knox Laughton), 줄리안 콜벳(Julian S. Corbett), 존 콜롬(John Colomb), 필립 콜롬(Philip Colomb), 시프리언 브리지(Cyprian Bridge), 레지널드 커스틴스(Reginald Custance), 에드몬드 슬레이드(Edmond Slade), 조지 알렉산더 밸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 모리스 행키(Maurice Hankey) 등 많은 인물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해군 역사학 운동을 선도했던 인물을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 단연 첫 번째는 존 녹스 로튼이며, 그 두 번째가 필립 콜롬이다.

35) 이 논문은 그의 형이었던 존 콜롬(John Colomb)이 만든 통상 보호와 제국의 영토 방어에 대한 이론적 기초에 역사적인 사례 연구를 덧붙여 작성한 논문이었다. Captain Philip H. Colomb, "Great Britain's Maritime Power: How Best Developed as Regards,"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22(1879)

36) 콜롬의 이런 전략 논의는 훗날 해군 정보부에 의해 발전되어 활용되기도 했다.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18.

37) 그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전쟁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강력한 함대의 움직임은 해양통제권을 보장하고 그것은 자국의 무역 보호와 함께 적의 통상 및 영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했다.

38) 국내에서 많은 저서, 연구들에서 'Mahan'을 '마한'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한글 표기는 '머헨'이 맞다. 「국립국어원 - 외래어 표기법」, 'Mahan - 미국의 군인

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의 방법론과도 연결되어 영국 대중 및 해군 관계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³⁹⁾

이러한 역사학 운동 초창기의 ‘역사와 전략을 결합한 연구’는 18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되었다. 로튼이나 콜롬이 보여줬던 역사 연구와 전략 연구의 시너지(synergy)가 해군 역사학 운동의 영향을 받은 여러 후배들에게 많은 영감과 자극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증기선 시대 도래 이후 생겨났던 과거의 경험에 대한 불신과 무지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다. 이는 제대로 된 역사 연구가 선행된다면 과거의 전략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결합하여 새로운 전략·전술로 재탄생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⁴⁰⁾ 이러한 믿음을 가진 많은 후속 세대들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인물로는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 1862-1948)를 들 수 있다.⁴¹⁾

벨러드는 해군 역사학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890년대 후반 해협 전대(the Channel Squadron)에서 함정을 지휘하면서 항해 경험을 쌓고 있었다. 벨러드는 이때의 항해 경험을 역사적 사례와 적절히 결합시켜 전략 차원의 연구로 발전시켰는데 이는 「전쟁 중 무역의 방어(The Protection of Commerce During War)」(1898)라는 논문으로 작성되었다.⁴²⁾ 이 논문은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 공모전에서 골드 메달을 수상하게 되는데,⁴³⁾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단지 공모전의 수상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되어 프랑스에 대한 영국의 해군 전략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⁴⁴⁾ 이 논문은 프랑스의 북쪽

(1840-1914)’ (URL: http://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View.do?mn_id=96&forgn_seq=5759&pageIndex=1) 접속일 : 2015. 11. 4. 11:00.

39) 이러한 콜롬의 주장은 1890년에 출판된 머헨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영국 사회에서 더욱 영향력 있게 작용했고, 로튼 역시 1893년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서평을 통해 콜롬의 주장을 지지하며 지적 의견을 공유했다.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19.

40)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p.7-8.

41) 조지 알렉산더 벨러드(George Alexander Ballard)의 해군 전략가 및 역사가로서의 활약에 대해서는 석영달, 「1920년대 영국 해군 중장 조지 벨러드의 일본사 서술이 갖는 의미」, 『제192회 영국사학회 정례발표회 발표 논문(2015. 8. 29.)』을 참고.

42)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p.5, 30.

43) Commander G. A. Ballard R.N. “The Protection of Commerce During War,”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42., No. 242(1898), pp.365-405를 참조.

44) 프랑스가 1898년 파쇼다에서 패배를 인정한 것은 프랑스 해군 내부의 조직적인 어려움과 명확한 작전 계획의 부재뿐만 아니라, 벨러드가 제안한 영국 해군의 봉쇄 작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측은 영국 해군의 새로운 전략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것을 벨러드 체계(système Ballard)라고 명명하기까지 했다.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기지에 대한 기존의 영국 해군 전략을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발전시킨 것이었는데, 훗날 영국 해군의 공격적인 ‘감시상의(observational)’ 봉쇄(blockade) 전략으로의 발전을 이끌어냈다. 이는 적의 기지들과 중요 지점에 대한 봉쇄 전략과 함께 1880년대 후반에서 1890년대로 이어진 프랑스의 청년 학파(Jeune Ecole doctrine)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사용되었다.⁴⁵⁾

이처럼 해군 역사학 운동의 성과들은 해군 장교들의 지적 역량 성장에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영국 해군의 실질적인 전략 수립에까지 적극적으로 기여했다.⁴⁶⁾ 결과적으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널과 논문 공모전은 역사 및 전략 연구를 통해 해군의 발전을 꾀했고, 동시에 출중한 인재들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다.

2. 시대적 변화에 대한 화두 제시

한편, 벨러드 이후의 논문 공모전의 해군 관련 수상작들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 변화를 해군에 맞춰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trend-setter) 역할을 했다. 물론 그 기저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례에서 도출해낸 교훈들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20세기의 모든 수상 논문들을 다룰 수는 없지만 1차 세계대전 전후로 영국 해군에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전한 5개의 수상작들을 다루면서 당시의 시대적 변화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04년 듀어(A. C. Dewar) 대위는 군함이 발전하고, 어뢰나 잠수함과 같은 신무기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봉쇄 전략(Blockade Strategy)이 변화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논문으로 골드 메달을 수상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먼저 과거 넬슨 시대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기존 봉쇄 전략의 전략적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⁴⁷⁾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해낸 특징들을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32.

45) 또한 이 전략은 훗날 1차 대전 전후로 독일의 잠재적인 전투에 대비해 다시금 채택되기도 했다.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p.5, 30.

46) Shawn T. Grimes,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p.5.

47) Lieutenant A. C. Dewar R.N., "In the Existing State of Development of Warships, and of Torpedo and Submarine Vessels in Waht Manner Can the Strategical Objects, Formerly Pursued by Means of Blockading an Enemy in His Own Ports, Be Best Attained?,"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04)* Vol. 48., No. 314., pp.331-333.

면서,⁴⁸⁾ 그 전략을 변화된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했다.⁴⁹⁾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904년에 이미 그가 잠수함과 어뢰의 잠재력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었다는 부분이다. 미국이 홀랜드 잠수함을 처음 채택하는 것이 1900년이었고, 이후 디젤 잠수함이 채택되는 것은 1912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⁵⁰⁾ 듀어의 분석은 해군력의 최신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었다. 즉, 듀어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잠수함이라는 신무기의 등장으로 인한 해전 양상의 변화에 대해 알리는 동시에, 그에 대한 해군의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1905년 골드 메달 수상작인 육군 중령 텔퍼-스몰렛(C. E. D. Telfer-Smollett)의 논문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전쟁에서 해군과 육군이 합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⁵¹⁾ 이는 영 제국의 방어에 대한 고민이 2차 보어전쟁(1899~1902)의 경험과 러일 전쟁(1904~1905)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 진지하게 이뤄진 것이다. 텔퍼-스몰렛은 지금까지 해군과 육군의 합동 작전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음을 지적하면서 영 제국의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미래의 전쟁 양상에 있어 해군과 육군의 합동작전의 필요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⁵²⁾

48) 듀어가 도출한 과거의 봉쇄전략이 변화된 시대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① 과거에는 하나의 전대에 대한 갑작스러운 집중 공격의 위험이 훨씬 적었다. ②과거에는 봉쇄 함대가 적의 전열함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그 역시 적절한 바람이 불어 그들이 나올 수 있을 때만 위협이 되었다. Lieutenant A. C. Dewar R.N. "In the Existing State of Development of Warships, and of Torpedo and Submarine Vessels in What Manner Can the Strategical Objects, Formerly Pursued by Means of Blockading an Enemy in His Own Ports, Be Best Attained?,"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04) Vol. 48., No. 314., pp.333-334.

49) 듀어는 증기선의 도입으로 인해 함정의 속도와 항해의 안정성이 변화되었고, 석탄의 공급 또한 고려 요소가 되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어뢰, 잠수함, 전신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된 신기술도 봉쇄 전략에서 고려해야한다고 말한다. Lieutenant A. C. Dewar R.N. "In the Existing State of Development of Warships, and of Torpedo and Submarine Vessels in What Manner Can the Strategical Objects, Formerly Pursued by Means of Blockading an Enemy in His Own Ports, Be Best Attained?,"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04) Vol. 48., No. 314., p.335.

50) 문근식,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1장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다: 잠수정부터 잠수함까지' 참고.

51) Lieut-Colonel C. E. D. Telfer-Smollett, "The Best Method For Carrying Out the Conjoin Practice of the Navy and Army in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for War, Illustrated by the Experience of the Past,"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05) Vol. 49., p.353.

52) Lieut-Colonel C. E. D. Telfer-Smollett, "The Best Method For Carrying Out the Conjoin Practice of the Navy and Army in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for War, Illustrated by the Experience of the Past,"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이어 1912년의 골드 메달 수상작인 듀어(K. G. B. Dewar) 중령의 논문은 독일 해양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영국과 독일의 해외 무역의 상황이 향후 전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도 역시 과거의 역사적 사례에서 해외 무역이 해군 정책에 미친 영향과,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는 해상에서의 전쟁 양상은 첫째로 해상 무역에 대한 공격, 그리고 둘째로 급습(invasion)의 형태로 이뤄지는 직접적인 군사적 공격, 셋째는 첫째와 둘째에 대한 거부 of 형태가 있다고 주장한다.⁵³⁾ 여기서 첫째, 둘째의 전쟁 방식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이라면 세 번째 방식은 부정적이며 수비적인 방식인데, 이런 전쟁 방식은 모두 적에게는 압력을 가하고 적에 의해 아군에게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의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통상 공격이며, 또 다른 하나가 통상 방어인데, 이 두 가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월한 해군 함대로 해양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⁵⁴⁾

한편, 1918년의 킹-홀(W. S. King-Hall) 대위의 골드 메달 수상작은 1차 세계대전 시 영국 해군이 고전했던 잠수함의 미래 전장에서의 영향력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독일의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고전했던 영국 해군 내에서 그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킹-홀은 잠수하는 형태의 함정들이 기존의 전함을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위치에서 끌어내릴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⁵⁵⁾ 이런 논문은 당시의 시대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후 영국의 해군력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1923년의 골드 메달은 노먼(A. H. Norman) 대령이 수상했는데, 그의

Institution(1905) Vol. 49., p.355.

53) Commander K. G. B. Dewar "What is the Influence of Oversea Commerce on the Operations of War? How Did it Affect Our Naval Policy in the Past, and How Does It in the Present Day?"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13)* Vol. 57., p.451.

54) Commander K. G. B. Dewar "What is the Influence of Oversea Commerce on the Operations of War? How Did it Affect Our Naval Policy in the Past, and How Does It in the Present Day?"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13)* Vol. 57., p.455.

55) Lieutenant W. S. King-Hall, "The Influence of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in the Future."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19)* Vol. 64., No. 455., p.360.

논문은 당대의 영국 해군에게 가장 큰 이슈였던 해군 항공단의 공군으로의 통합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⁵⁶⁾ 노먼은 항공력이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소개하면서, 공군은 그 자체로 운영되기보다는 해군 및 육군과 함께 전쟁에서 이용될 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공군의 독립적인 활용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⁵⁷⁾ 이런 견해는 단순히 공군의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워싱턴 군축회의(1921-1922)의 결과로 전함의 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해군 항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더 강했다. 실제로 1차 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항공모함의 건조와 함께 해군 항공을 발전시켜갔던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영국의 발전 노력은 매우 더디었다. 그리고 이런 우려는 훗날 2차 대전에서 현실로 드러나면서, 미래를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국내의 여러 상황으로 인해 끝내 그것을 바꿀 수 없었던 영국 해군의 아쉬움으로 남게 되었다.⁵⁸⁾

이처럼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들은 영국 해군의 지적 조류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했고, 당 시대의 전략의 근간을 지탱하기도 했으며, 시대별 이슈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영국 해군과 사회를 연결시키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렇다면 이런 과거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이 현재의 우리에게는 어떤 시사점을 전해줄 수 있을까?

56) 영국 해군은 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항공모함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해군 항공의 발전을 선도하였으나, 1920년대 이후 예산 감축으로 인해 더 이상 신형 항공모함에 투자를 하지 않았고 해군 항공대가 공군으로 통합되면서 그 활용이 어려워졌다. Paul M. Kennedy, *The Rise and Fall of British Naval Mastery* (New York: Humanity Books, 1998), p.281.

57) Captain A. H. Norma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 Separate Air Force for the Royal Navy."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1919)* Vol. 69., p. 275.

58) 워싱턴 군축 회의 이후 영국은 일본과 공식적으로 동맹을 해체하였고, 더 이상 태평양 지역에서 해양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일본을 견제하고, 나아가서는 미국과 견줄 수 있는 항공모함을 비롯한 해군력 건설이 필요했으나 1차 세계대전 이후 군비를 감축하려는 국가 전체의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 Andrew Field, *Royal Navy Strategy in the Far East 1919-1939 - Preparing for War against Japan* (London: Frank Cass, 2004), p.21.

IV. RUSI의 친(親) 해군 활동 및 논문 공모전이 갖는 의미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포럼 개최, 저널 발간 등을 통한 친(親) 해군 활동은 19세기 중반 이후 영국 해군의 지적인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특히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에서 주최했던 논문 공모전은 당 시대의 해군 및 해양력과 관련한 화두를 던지고, 영국 해군의 전략에 근간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명실상부한 국가적 차원의 활동이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현재의 우리나라에도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했던 활동들과 거의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해군·해양 관련 연구소가 있는데, 그 곳은 바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이하 KIMS)이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1997년 1월 23일 해양수산부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식적인 단체이자, 2009년 7월 8일 해군본부와 학술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⁵⁹⁾ 해군, 해양 관련 세미나 및 포럼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국내의 유일한 민간 해군, 해양 관련 학술기관이다.⁶⁰⁾ 그리고 한국 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 공모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는 격년제로, 2014년부터는 매년 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다. 해양전략연구소에서 이 논문 공모전에서 내건 상금은 국내 최고 수준의 규모이며,⁶¹⁾ 시상을 우리나라 해군의 수장인 참모총장이 해군본부에서 직접 한다는 점에서 그 상징적 의미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공모에 참가 가능한 논문의 범위 또한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양안보, 해양전략, 해양력, 해군력, 해양경제, 해양사, 해양법 등 해양과 관련한 거의 모든 주제를

59) 우리나라 해군본부 외에도 미해군분석센터(CNA), 영국 King's College 부설 콜벳해양정책연구소, 중국남해연구원(NISCS), 호주해양연구소 등의 해외 기관들과도 학술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국내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해병대전략연구소 등과 학술교류협력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설립목적/연혁」, (URL: <http://www.kims.or.kr/history/>, 접속일: 2015. 9. 29.)

60)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설립 목적은 해양전략, 안보, 해양법, 해양사 및 해양경제 관한 조사, 정보교류, 이해증진 및 홍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해양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해양정책 및 해양전략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국가발전, 안보, 역내의 국제평화 및 우호협력관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 대한 더 자세한 역사를 살펴보려면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설립목적/연혁」, (URL: <http://www.kims.or.kr/history/>, 접속일: 2015. 9. 29.);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지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10년사 : 1997-2007』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7) 등을 참조.

61)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상금일 뿐만 아니라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공모전에서 현재 수여하는 상금(1,000 파운드, 한화로 약 180만원)과 비교했을 때도 더욱 큰 규모이다.

폭넓게 다룬다는 점에서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 공모전과 유사점이 있다. 또한 대학생/대학원생 등의 일반인 참가자뿐만 아니라 소령 이하의 현역 군인들이 참여한다는 면에서도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⁶²⁾

이런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과거 19-20세기의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가 했던 활동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전하는 시사점을 특히 한국 해양전략연구소의 활동에 초점을 맞춰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해양전략연구소의 활동이 과거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과 비견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그리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 보완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제시해보고자 한다.

1. 해군, 해양 관련 공론장(public sphere)의 역할 : 포럼 및 저널의 잠재력

19-20세기의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당대의 가장 명망 있는 군사연구소로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당대의 해군 관련 ‘공론장(public sphere)’⁶³⁾으로 기능했기 때문이었다.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이 그렇게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지 유명인들의 강좌가 열리고, 그들이 포럼을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모두의 공론장이기 때문이었다. 19세기 중반 이후 사회와 해군을 매개하고, 해군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나 여론의 담지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포럼과 저널이었다.

따라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포럼에는 해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었고, 저널 역시 현역 군인뿐만 아니라 전역한 군인이나 군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까지 모두 글을 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표출된 의견들은 단지 한 번만 포럼에서 토의되거나 저널에 실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62) 영국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논문 공모전 골드 메달 수상자 내역을 보면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등 다양한 계급에서 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높은 계급의 수상자들보다 젊은 계층인 대위·소령 계급의 수상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63) 독일의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는 1962년 교수자격취득 논문으로 발표한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 공론장을 “사회와 국가를 매개하는 영역으로서 공중이 스스로를 여론의 담지자로 조직해 나가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언론과 사회』 (2012), p.179.

논의가 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면 다음 포럼이나 저널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금 재조명되었다. 특히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논문들의 경우 바로 다음 호 저널에서 별도의 섹션이 할당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고, 이런 토의 결과들은 해군성에도 전달되어 해군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이런 공론장 형성을 통해 다양한 계층에서 해군의 발전을 위한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영국 해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 갔던 것이다.

이와 견주어 현재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주도하는 해군·해양 관련 공론장의 역할을 살펴봤을 때, 그 수준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해양전략연구소는 5가지의 큰 방침을 세우고 해군 및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⁶⁴⁾ 그 중 3번째 방침에 해당하는 학술회의의 개최는 과거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포럼과 비교해도 거의 부족함이 없을 정도이다.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해양전략연구소의 포럼 및 세미나에서는 국내의 전문가 및 해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규모에 따라서는 해외의 해양 전문가들까지 초빙하여 국제 정세 및 우리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토론을 펼치고 있다.⁶⁵⁾ 이러한 활동은 국내 여러 해양 분야의 학술적 연구 및 관심 고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해군과도 상호 교류하며 향후 해군이 나아갈 비전(Vision)에 대한 조언을 전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반면, 해양전략연구소의 저널 『Strategy 21』의 전달력 및 파급효과에 있어서는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저널과 비교했을 때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무엇보다도 현재 국내에서 거의 유일한 해군·해양 관련 전문 저널이라고 봐도 무방한⁶⁶⁾ 『Strategy 21』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

64)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운영 방침은 해양전략, 해양전력, 안보, 해양법, 해양사 분야 전문인력을 Network화하여 ①해양 및 안보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술활동 적극 추진, ②변화하는 전략 환경에 부응하는 해양 및 안보전략 발전방향 제시, ③국내외 학술회의의 적극 참가 및 국제학술회의 공동 개최로 연구소 Globalization 추진, ④대학생, Opinion Leader 등 계층별로 차별화된 해양, 안보 교육지원 및 강화, ⑤정부 정책과 해군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해군관련 연구용역 과제 수행 등이다.

65) 현재까지 해양전략연구소 주관으로 71회의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올해도 제12회 국제해양력 심포지움(2015. 10. 19.), 제9회 세계해양포럼(2015. 10. 20.) 등을 비롯한 여러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66) 현재 국내에 군(軍) 내에서 출판되는 논문집을 제외한 민간 기관에서 발간하는 해양 관련 학술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해양정책연구』와 『Strategy 21』이 전부이다. 그러나 이중 해군, 해양과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다루면서 2000년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출간되고 있는 저널은 『Strategy 21』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학술지 기관통계」, (URL: <https://www.kci.go.kr/kciportal/po/statistics/>)

(KISS), 디비피아(DEBPIA) 등과 같은 민간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검색조차 할 수 없다. 심지어 해양전략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도 『Strategy 21』에 실린 논문들의 제목만 확인 가능할 뿐, 그 논문의 원문 자체에는 접근할 수 없어 논문 내용의 확인이 불가하다. 때문에 오직 『Strategy 21』를 직접 구독하거나 국회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저널에 실린 논문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해군·해양 분야에 관심이 있어 관련 자료를 찾는 사람들이나 그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Strategy 21』의 자료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Strategy 21』이 학술지로서 어떤 전달력이나 파급력을 가지고자 한다면 일단 많은 사람에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폐쇄적인 통로를 통해서 제한된 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⁶⁷⁾

또한 『Strategy 21』은 1998년부터 출간되어 10년이 넘는 세월을 동안 꾸준히 출간되어왔고, 2007년부터 많은 상금을 걸고 해양 수산부와 해군 본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권위 있는 논문 공모전까지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연구재단(KCI)의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이 그 저널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 저널의 전달력 및 파급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분명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 저널에서 제시되는 의견, 토의되는 내용이 구독자와 기고자들만의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대중들, 혹은 해양·해군 관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 권위를 확보하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저널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독자들이 관심가질 만한 매력적인 내용들을 담음으로써 저널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가고, 기고된 글을 엄선하여 저널의 수준을 높여간다면 결코 요원한 일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1년에 여러 권으로 나뉘어 발행되는 『Strategy 21』의 발행 호수를 반기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으로 줄여서 기고된 논문을 좀 더 엄격히 선별하고, 저널의 방향에 부합하는 논문들을 채택해나간다면 저널의 공신력이나 인지도를 좀 더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

poStatisticsMain_kci?tab_code=Tab1, 접속일: 2015. 9. 29.)

67) 유일하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Strategy 21』의 논문이 검색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대중들이나 여러 군인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 동시에 학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널을 등록하여 좀 더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비록 저널이 1년에 발행되는 권수는 줄어들지라도 그 파급력이나 영향력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생각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해양전략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라도 공개적으로 논문을 개방하여 많은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개적 포럼’이라는 해양전략연구소의 최초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2. 해군, 해양 분야의 지적 역량 강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친(親) 해군 활동들은 당대의 해군 분야의 지적 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들이 단지 추상적인 수준에서의 제언이나 현상 진단 정도의 수준에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영국 해군의 전략이나 전력 획득과 관련한 실질적인 차원의 고민으로 이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은 실제로 영국 해군의 전략 수립에 근간이 되거나, 전력 획득 계획에 반영되면서 영국 해군의 역량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부분은 영국 해군 내에서 단지 하드웨어적 변화만 쫓아서는 강한 해군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이루어졌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정신적인 측면’의 해군력 역시 함께 발전해나갔을 때 해군이 비로소 온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적인 측면’의 해군력이란 우리가 흔히 ‘정신전력’이라고 칭하는 것으로서, 유형(有形)의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그것 자체의 힘 이상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전력을 의미한다. 유럽이 증기선 시대에 돌입하여 다들 비슷한 해군 전력을 구축해갈 때에도 영국이 꾸준히 세계 제일의 해양 강국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 정신전력, 즉 해군 분야의 지적인 역량을 함께 강화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국가들보다도 오랫동안 해양에서의 빛나는 승리와 그것을 통한 값진 경험을 쌓아왔던 영국은 그것을 전략, 전쟁 계획, 전력 획득과 같은 지적 역량으로 잘 발전시켜나갔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친(親) 해군 활동이 그 토대가 되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해군·해양 분야의 지적 역량 발전이 주는 긍정적인 교훈은 현재의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 및 해군력의 발전에 있어서도 적용해볼 수 있다. 우리 스스로 해군과 해양 분야의 많은 발전을 이룩하며 점차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

고 있음을 자부하고는 있지만, 주변의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등과 같은 강대국들과 비교했을 때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그리고 국제적인 현실과 우리의 경제력, 북한과의 대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유형(有形)의 해군력이나 해양력을 단시간에 크게 성장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하드웨어적인 역량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군의 정신전력’ 측면에서의 성장만 놓고 본다면, 그 발전 가능성은 실로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우리 해군이 가진 능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거나 우리나라의 해양 안보를 수호하는 전략에 대한 고민, 나아가 우리 해군을 시대 변화에 따라 ‘대양해군’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전력 획득의 구상 등과 같은 고민은 해군의 수뇌부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바다와 해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또 관심을 갖고 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는 새로운 시각들이 모여 풍부한 논의가 이뤄질 때 그것은 분명 우리나라의 해군 및 해양력 발전을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활동이 해양전략연구소 자체에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SNS 활동이나 언론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진다면 해양전략연구소의 활동은 해군, 해양 분야의 진정한 싱크탱크(Think Tank)로서 국가적 차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해양전략연구소가 우리나라의 해군, 해양 분야의 지적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비로소 진정한 ‘해양 강국’이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V. 결론

19세기 중반 한 퇴역 군인의 제안으로 시작된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설립은 우연적인 요소들로 인해 시작되었다.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연구소가 19-20세기 영국 해군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19세기 중후반 형성되었던 해군 역사학 운동의 움직임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갔다. 그리고 해군 정보부, 해군 기록학회의 활동과 함께 영국 해군의 지적 조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 든든한 기

반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포럼은 해군의 관심사와 전략, 정책 등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것의 저널은 정보 및 의견 전달 역할 뿐만 아니라 다시 의견들을 수렴하여 토의하는 장이 되었다. 이처럼 왕립 합동군사연구소는 19-20세기 영국의 명실상부한 해군 관련 공론장(public sphere)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에서 주최했던 논문 공모전은 그 활동의 정점과도 같았다. 논문 공모전 중에서도 특히 해군 관련 논문들은 영 제국 운영의 근본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입지가 흔들리고 있던 영국 해군의 현실과 마주하며 여러 어려움을 타개할 발전적인 논의를 이뤄냈다. 매년 논문 공모전에서 주목받아 수상작이 되었던 논문은 그 당시 해군의 화두를 반영하는 논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해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도 해냈다. 그리고 그런 논문 공모전에서 두각을 드러낸 인물들은 영국 해군이 함대를 운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무를 부여받기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논문 공모전은 영국 해군의 현실을 반영하고, 미래를 예상하며, 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인물들을 선별하는 역할까지 함께 수행했던 것이다.

필자는 이런 19-20세기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과 모습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해군, 해양 관련 연구소에 전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그 중에 특히 한국해양전략연구소는 과거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수행했던 역할들을 이미 거의 유사하게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가능성과 잠재력도 엿볼 수 있었다. 다만 해양전략연구소의 활동이 좀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파급력을 지닌다면 왕립 합동군사연구소가 했던 활동 이상의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 나라의 해군력이 발전하는 데에는 단지 최첨단의 신무기와 더 많은 병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강한 해군력에는 유형(有形)의 전력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지휘능력이나,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지적인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지적인 역량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도 없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와 토의, 토론을 통해서만이 이뤄낼 수 있다. 이런 지적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 과거 영국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의 활동을 능가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연구소가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Ballard, George A. "The Protection of Commerce During War,"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ion* Vol. 42(1898).
- Colomb, Philip, "Great Britain's Maritime Power,"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ion* Vol. 22(1879).
- Dewar, A. C., "In the Existing State of Development of Warships, and of Torpedo and Submarine Vessels in What Manner Can the Strategical Objects, Formerly Pursued by Means of Blockading an Enemy in His Own Ports, Be Best Attained?,"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48., No. 314(1904)
- Dewar, K. G. B., "What is the Influence of Oversea Commerce on the Operations of War? How Did it Affect Our Naval Policy in the Past, and How Does It in the Present Day?"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57(1913).
- King-Hall, W. S., "The Influence of the Submarine in Naval Warfare in the Future."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64., No. 455(1919).
- Laughton, John Knox, "The Scientific Study of Naval History,"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 Institution* Vol. 18(1875).
- Norman, A. H.,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a Separate Air Force for the Royal Navy."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69(1923).
- Telfer-Smollett, C. E. D., "The Best Method For Carrying Out the Conjoin Practice of the Navy and Army in Embarkation and Disembarkation for War, Illustrated by the Experience of the Past."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49(1905).
- "The Loss of HMS Victoria," *The Times*, (London, England), 2 November 1893.

2. 2차 자료

1) 단행본

- Bartlett, C. J., *Great Britain and Sea Power 1815-1853* (Oxford: Clarendon

- Press, 1963).
- Grimes, Shawn T., *Strategy and War Planning in the British Navy, 1887-1918* (Woodbridge: The Boydell Press, 2012).
- Lambert, Andrew, *The Foundations of Naval History: John Know Laughton, the Royal Navy, and the Historical Profession* (London: Chatham, 1998).
- Lewis, Michael, *The History of the British Navy* (London: Penguin books, 1957).
- Marder, Arthur J., *The Anatomy of British Sea Power—A History of British Naval Policy in the Pre-Dreadnought Era, 1880-1905*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 Nicholas A. Lambert, *Planning Armageddon: British Economic Warfare and the First World War*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12).
- Schurman, D. M., *The Education of a Navy: The Development of British Naval Strategic Thought, 1867-1914* (London: Cassell, 1965).
- Till, Geoffrey, ed., *The Development of British Naval Thinking: Essays in Memoiry of Bryan McLaren Ranft* (Abingdon: Routledge, 2006).
- 문근식,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폴 케네디 지음, 김주식 옮김,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서울: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2010).

2) 논문

- Adams, Paul, "The Military View of the Empire 1870-1899: As Seen Through th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43(1998)
- Allen, Matthew, "The Foreign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Origins of the Nav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the Admiralty," *The Mariner's Mirror*(1995)
- Bailes, H., "Patterns of Thought in the Late Victorian Army,"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Vol. 4., No. 1(1982)
- Bidwell, Shelford, "A History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Journal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ion* Vol. 136(1991)
- O'Connor, D. P., "The RUSI, Imperial Defence and the Expansion of Empire 1829-90,"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URL: <https://rusi.org/about-rusi/history>, 접속일: 2015. 9. 15.).

- 김현수, 「19세기 영국의 외교정책: “위대한 고립책(Splendid Isolation Policy)”」, 『서양사론』, 제43호 (1994).
- 박홍원, 「공론장의 이론적 진화」, 『언론과 사회』 (2012)
- 석영달, 「1920년대 영국 해군 중장 조지 밸러드의 일본사 서술이 갖는 의미」, 제192회 영국사학회 정례발표회 발표 논문(2015. 8. 29.)
- 석영달, 「19세기 증기선의 도입과 영국 해군의 변화」, 『영국연구』 제30호(2013).
- 석영달, 「19세기 후반 영국의 해군연감이 가진 입체적 성격과 의미」, 『Strategy21』 제35호(2014년, 겨울호).
- 이영석, 「19세기 영제국과 세계」, 『역사학보』, 제217집 (2013).

3) 기타 자료

- 「국립국어원 - 외래어 표기법」, ‘Mahan - 미국의 군인(1840-1914)’ (URL: http://korean.go.kr/front/foreignSpell/foreignSpellView.do?mn_id=96&forgn_seq=5759&pageIndex=1, 접속일 : 2015. 11. 4. 11:00).
- 「왕립 합동군사연구소 홈페이지」 (URL: <https://www.rusi.org/trenchgascoigne/history/>, 접속일: 2015. 9.25.).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학술지 기관통계」, (URL: https://www.kci.go.kr/kciportal/po/statistics/poStatisticsMain.kci?tab_code=Tab1, 접속일: 2015. 9. 29.).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설립목적/연혁」, (URL: <http://www.kims.or.kr/history/>, 접속일: 2015. 9. 29.).

Abstract

The Meaning of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s Activity and Paper Prize Contest in the 19-20th Century in Britain

Seok, Yeong - Dal*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RUSI) was founded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n Britain. It was developed through 'Naval Historical Revitalization Movement' in that time. Many celebrities and people who were interested in the Navy participated in the activities of the RUSI. For example, the forums and lectures were held by prestigious persons, like Sir Garnet Wolseley and the Duke of Cambridge. It also became the milestone for guiding the flow of the Royal Navy's thought with the Naval Intelligence Department and the Naval Records Society. The forum of the RUSI was the place for debating naval hot issues. The journal of the RUSI was the space for suggesting an idea and gathering public opinions for developing Britain's sea power. Therefore, the RUSI was the public sphere for the Royal Navy in the 19-20th Century.

And especially, the paper prize contest of the RUSI was the culmination of the RUSI's activities for the Royal Navy. Naval prize essays gave messages to the Royal Navy about the changing situation of European naval powers. Also, they made many meaningful debates for the Royal Navy to overcome the difficult situations in that time. Those essays were reflecting the issues of the Royal Navy and leading the way for getting over it. Besides, some people appeared through the contest and they played important roles for making the

* R.O.K. Navy Officer(Lieutenant), Yonsei University Master's degree in history.

contingency and planning the war. The contest reflected the past, anticipated the future, and selected the talented persons to shape the future.

This developing aspects of the RUSI could apply to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KIMS). The KIMS already carries out the role of the RUSI very similarly. If the KIMS changes to the way for open-door policy to more people, it will work more efficiently for their goal. In this respect, the messages of the RUSI will be very useful for improving the activities of the KIMS.

Key words : The 19-20th Century Royal Navy,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RUSI), The Journal of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Gold Medal Prize Essay, Paper Prize Contest, The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KIMS)

논문접수: 2015년 9월 30일 | 논문심사: 2015년 11월 9일 | 게재확정: 2015년 11월 17일